

제122회 4월 9일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122회 발명교실이 지 ...○
- ... 난 4월 9일 발명장려 ...○
- ... 관 연구실에서 개최 ...○
- ... 되었다. 매월 둘째 ...○
- ... 토요일 오후 1시 30 ...○
- ... 분에 개최되는 발명 ...○
- ... 교실은 이 달에도 1 ...○
- ... 백여명이 참석하여 ...○
- ... 성황을 이루었다. ...○
- ... 이날 발명교실에서 ...○
- ... 는 한국여성발명가회 ...○



E.R 꽃음 플러그 발명가 한국여성발명가회 황소현 총무이사

전국적으로 TV시청을 1시간 단축하면 연간 약3백억원의 전기료가 절감되고, 전국가구수의 20%가 하루 8시간 정도만 플러그를 빼놓으면 3백억이 넘는 돈이 절약된다.

세상사람들은 항상 남녀평등을 부르짖는다. 모든일들이 남과여가 구분되어서 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기 때문이다.

굳이 남녀를 구분지어 일을 하려 한다면 과연 어떤일을 남자가 하고 어떤일을 여자가 해야 되는걸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다.

여기 한가지 성역이 없는

분야가 있다. 발명이란 분야다. 남여뿐만 아니라 노소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번달에는 여성발명가 한분을 소개한다.

‘황소현’

E.R(Easy Remove)꽃음 플러그를 발명한 주인공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뽑기가 쉬운 플러그의 발명자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섬세하고 세심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발명에 있어서도 그 사실은 틀림없이 적용 되었다.

발명가 황씨가 이 플러그를 만들게 된 동기는 세심한 곳에서부터 비롯 되었다.

주부로서 집안일도 꾸려 나가라 자기일도 가지라 일상생

활이 바쁘기만 하였다. 이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 출근을 하려고 플러그를 뽑으려 하다 보면 잘 빠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전선줄을 잡아 당길순 없었다. 만약에 줄이라도 망가지는 날엔 전기합선으로 인해 뜻밖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함과 위험성을 없애 보고자 하는 세심한 마음에서 황씨의 발명은 시작 되었다.

처음에는 용수철을 이용해서 스위치만 누르면 플러그가 자동으로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다. 실패였다.

용수철의 장착이 복잡하고 그보다 제작 단가가 올라가 판매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약

발명교실

성공사례 등 발표

- ... 황소현 총무이사의 ...○
- ... 성공사례 발표와 황 ...○
- ... 종환 변리사의 산업 ...○
- ... 재산권제도 해설에 ...○
- ... 이어 새생각회 강신 ...○
- ... 목 회장의 발명의 발 ...○
- ... 상기법에 대한 강의 ...○
- ... 가 있었다. ...○
- ... 발명가의 성공사례 ...○
- ... 를 간추려 소개 한 ...○
- ... 다.〈이두성記〉...○



해지기 때문이었다.

다음에 착안한 방법이 지렛대를 이용한 이탈리아의 부착 방법이었다. 대성공이었다. 간단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착안이었지만 불편함과 위험성이 일시에 사라질 수 있어 재산상의 손실이나 인명의 피해는 걱정을 안해도 되니 얼마나 좋은 발명인가.

발명이 황씨는 사명감을 가지고 개발한 제품을 출원하여 의장 등록도 받았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건 아니었다. 애써 만든 발명품이 아무리 편리하고 안전하다 해도 제품화와 실용화가 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더구나 황씨가 만든 제품은 전기용품이다 보니 상품화를 위한 허가 사항이 다른것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워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 처럼 황씨도 그 뜻은 이룰 수 있었다. 황

씨의 열성에 주위 사람들이 도움을 보내온 것이다.

모 주식회사와 E.R.꽃을 플러그의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함께 사용 댓가로 매출액의 5%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제품화에 성공하였고, 정부로 부터는 형식 승인까지 받아 제품을 생산 하게 된 것이다.

평소에도 마스크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TV시청을 1시간만 단축하면 연간 약3백억원의 전기료가 절감되고, 전국 가구수의 20%가 하루 8시간 정도만 플러그를 빼놓으면 3백억이 넘는 돈이 절약 된다는 말을 들어온 황씨는 자신의 세심함이 국가 경제에도 초석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플러그를 좀더 쉽게 뽑으므로써 그 편리함 뒤에는 이런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쌓여 있어 황씨로서는 여간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다.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시끄럽다는 말이 있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말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지금은 모두가 자기의 일에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남녀평등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는 것이다.

발명은 이런 능력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원한다. 여성이라 발명을 못한다고 핑계대거나 거부한다면 그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다. 위대한 발명은 어머니가 아이를 탄생시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국여성발명가회 총무이사로 일하고 있는 황소현씨뿐만 아니라 여성들 모두는 발명가가 될수 있다. 이땅의 여성들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엿보므로써 우리 나라의 앞날도 밝아만 갈 것이다. <♣>